

CoverStory

인천항의
역사와 비전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8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식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최로
2007년 8월 20일 오후 4시인
천라마다송도호...



인천선주협회 남흥우위원
장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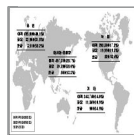
인천항은 백제 근초고왕 27
년 능허대 나루터에서 중국
동신과 통교했던 시점이...

인천/나/들이



송도자원화시설
인천시에는 서북부지역에 위
치한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자
원화시설을 비롯하여 ...

시/정/연구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주변국 공항실태 및
정책방향
세계 항공수요는 세계경
기침체 및 2...

도/시/동/향



성장하는 닝보·저우산항
의 잠재가능성을 보라
양쯔강 황금수로와 중국
대륙의 남북...

신/간/소/개



세계를 향한 첫걸음, 미
래를 향한 큰걸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
지구) GM대우...



인천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천선주협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단법인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는 회원사들의 권익증진을 물론, 회원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천항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5년 4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사)한국선주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들 중 인천에 사무소가 있는 회사의 소장들로 구성되어 현재 10개의 국적선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고, 항주 2개의 선사가 추가로 가입 예정이네요.



인천선주협회 위원장 & 남홍우
인사80회장위원장

인천이 항만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까지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알기 쉽게 인천항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인천항은 백제 근초고왕 27년(372) 능허대 나루터에서 중국 동진과 통교했던 시점이 개항의 시초예요. 그 후, 조선 고종 20년(1883) 1월 1일 상업항으로서 부산, 원산항에 이어 3번째로 개항을 했어요.

1911년 6월에는 인천항의 문제인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船渠)를 착공하였고, 7년 후인 1918년 10월에 준공되어 3만여평의 수면적을 확보하였으며, 4,500톤급 3척과 2,000톤급 4척이 동시에 접안하여 연간 130만톤의 화물처리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도크항은 1966년 착공, 1974년에 준공됨으로써,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하역방지인 갠주리 크레인 4부두에 설치되었고, 연간 하역능력이 972만8천톤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2004년 7월, 2005년 10월 외항인 남항에 대한통운, ICT, 선광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개장으로 외항시대의 막이 열렸고, 2006년 12월, 2007년 1월에는 북항에 동국제강,현대제철 철재부두의 개장으로 내항 8부두에 접안 하역하였던 고철 선박이 북항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북항에 벌크선박 전용 선석 17개가 완공될 예정이며, 2012년엔 인천신항에 6개의 컨테이너선석이 완공될 예정이네요.
이처럼 인천의 항만은 개항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왔고, 앞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해 갈 것임을 알 수 있죠.

현재 인천항의 모습을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인천항은 **누구도 못 말리는 항,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할 항, 고객이 푸대접 받는 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먼저, 항만시설의 부족과 중앙정부의 휴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누구도 못 말리는 항'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꾸준히 물동량이 증가되고, 북중국항만의 대형화로 인한 대형선의 인천항 기항 가능 및 한적 카고 발생과 미주, 구주항 선적 스페이스 확보로 원활한 수·출입업무의 진행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로 인천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하지만, 인천항의 고객인 선사나 화주가 모든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제자리로 결국 체선, 체하로 고통받는 고객이 '푸대접 받는 항'도 바로 인천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천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다일텐데요, 그 바다가 있기에 인천의 항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전의 이면에 인천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그리고 앞으로 인천항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인천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부족이라고 생각해요. 항만의 3대 조건인 부두(또는 터미널), 배후부두(CY), 배후도로망이 부족하거나 미비되어 체선, 체하에 의한 선사의 체선성 악화 및 운항 일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대외신뢰도 추락과 화중의 물류비 증가 또는 납기 지연으로 인해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항만 및 물류관련 관계자간의 교류 기회 및 정보의 교환기회가 너무 적어 인천항만과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과 관련된 약 43개의 업체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천항의 시설부족과 정보교환 인프라의 부재 등은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인천항 홀대정책으로까지 인식하게 된 Two-Port 또는 Three-Port시스템 정책으로 인천항의 재정투자에 인색해요.

1990년대의 고배지진과 중국경제 고성장 및 중국항만의 열악한 상황으로 해수부의 Two-Port system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 2000년대 들어 중국항만의 대형화로 중국항 물량이 직접 대형조선으로 중국항만에 적기항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인천항이 간선항로에서 기간항로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인천항에 대형선 접안 터미널이 없어 북중국기항 대형조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좀 더 활발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앞으로 인천신항 초기 건설, 제3준설투기장에 통한 국제여객터미널 초기 건설과 제3투기장, 인천신항배후, 북항배후 물류단지 초기 확보 및 북항과 내항 및 인천신항을 연결하는 배후도로와 각각의 물류단지와 연계한 외곽고속도로망이 초기 건설된다면 인천은 항만, 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이 어우러진 세계 어느 항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 북중국항만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인천이 우리나라 최고의 항구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인천항은 인천지역경제의 33%의 비중과 20-25%의 고용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며, 인천항만과 관련된 업종만 43개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현장으로 인천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네요.

2003년부터 인천항 또한 수입항에서 수출항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수출화물은 공해와 무관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2006년에 138만 Teu를 처리하였고, 2007년에는 165만 Teu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 인천항은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인천시민의 인천항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인천항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산업현장과 친수공간이 함께 어우러져있는 인천항만이 되어 인천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인천항만관련 소식 ★

인천항을 사랑하는 80인의 모임
인천항을 사랑하는 80인의 모임을 인천항 발전을 위해 항만관련 43개 업종별 단체장 및 직원, 자원단과 고문단이 함께한 자체적인 민간단체로 인천항에 한 척의 배라도 더 유치하고 최고의 항만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2006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insa80.com

연/구/원/소/식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8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식



2007년 8월 20일 오후4시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최로 2007년 8월 20일 오후 4시 인천라마다송도호텔 컨벤션홀에서 "한중수교 15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식이 열렸습니다. 국책 및 지자체 출연 연구원 중국 천진, 상해, 대련, 산둥, 청도에서 참석한 중국 주요도시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자신이 속한 도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2007년 8월 21일

2007년 8월 21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환발해지역 성장거점도시들간의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인천을 중심으로 양국 교류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소주제를 가지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주제 세션 I : '수교이후 韓中 間 分업구조의 변화와 향후 전망 세션 II : '韓中 도시의 발전전략' 세션 III : '韓中 도시간 경쟁과 협력'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초청외빈 인천시찰



2007년 8월 22일

초청외빈(중국천진, 대련, 상해, 청도, 산둥)에게 인천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2007년 8월22일 수요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월미공원전망대, 인천대교 건설사업단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시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8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시에는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자원화시설을 비롯하여 남서쪽에 위치한 송도자원환경센터까지 총 3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송도자원화시설에서 시원한 여름을....

인 천시에는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자원화시설을 비롯하여 남서쪽에 위치한 송도자원환경센터까지 총 3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 중 청라와 송도에 위치한 자원화시설들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스포츠센터와 축구장, 농구장등의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들은 주민들이 입지를 꺼리는 기피 대상 환경기초시설로 자원화시설들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당한 수준의 주민 편의시설들을 건설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송도자원화시설은 연수구에서 LNG인수기지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를 따라 약5분간 달려가면 LNG인수기지를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화시설은 일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00톤/일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실내수영장, 축구장 등의 주민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일 2,200톤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1/3가량이 송도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송도자원환경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체육시설 위치도

송 도자원화시설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인천시에서 가장 좋을 듯한 시설의 수영장장 헬스장,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잠수풀과 실내인공암장을 동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실내수영장 전경



헬스장 전경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사우나장, 스쿼시장은 선착순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잠수풀과 실내인공암장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장비를 갖춘 전문가만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영장은 실내수영장은 물론 유아풀과 옥외풀도 있어서 가족수영에 적합하다. 이외에도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골프장 등의 실외생활체육시설과 바다가 보이는 광장, 지압마당, 자전거 산책로, 카페테리아 등의 가족공원과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경우는 사전예약이 필요하지만 기타의 시설들은 선착순으로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골프장은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곧 개장할 예정에 있어 골프장이 개장하면 가족 나들이 장소로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다가 보이는 광장 전경

만약 체육시설 이용과 더불어 환경교육을 원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을 추천하고 싶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견학 대상은 초등학생(8세)이상의 학교 및 단체면 가능하다. 견학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예약과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http://ser.incheon.go.kr>에서 얻을 수 있다.

시/정/연구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주변국 공항실태 및 정책방향

동북아·물류연구실 임성수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8월호

검색

웹진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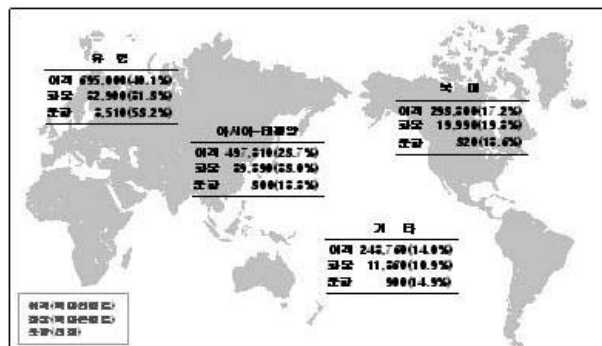
세계 항공수요는 세계경기침체 및 2003년의 SARS영향, 최근의 항공유가의 급등의 악재로인한 감소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주변국 공항실태 및 정책방향 비교연구

세계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전망

- ◆ 세계 항공수요는 세계경기침체 및 2003년의 SARS영향, 최근의 항공유가의 급등의 악재로 인한 감소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 ACI 회원국 기준 항공수송실적은 여객 36억 6천만명, 화물 73백만톤 운항회수 63백만회로 나타남('04)
 - ▷ 지역별 항공수송실적은 여객부문은 유럽이 40.1%, 항공화물 부문은 아태지역이 38.0%로 각각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
 - ▷ 운항회수는 유럽이 3,510천회로 전체의 58.2%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 최근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푸둥, 북경, 창이공항 등 아태지역 공항은 높은 성장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아태지역이 항공운송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될 전망

주요공항 현황

- ◆ 중국내 공항은 모두 133개이며, 주요 국제공항은 북경 수도공항, 상해 푸둥공항, 광주 백운공항 등 소수에 불과
 - ▷ 중국민항총국은 2010년까지 186개 공항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
- ◆ 일본은 7차례에 걸쳐 시행된 '공항정비 5개년 계획(제7차는 7개년 계획)'에 따라 공항 증설과 항공기 대형화에 따른 정비
 - ▷ 2006년 기준 약 100개의 공항이 있으며, 제1종 공항 5개, 제2종 공항 26개, 제3종 공항 55

개, 기타 14개 능입.

◆ 홍콩(첵랍콕공항)은 여객 3,670만명. 화물 312만톤을 처리('04)하였으며, 향후 개발 완료시 여객 8,700만명. 화물 900만톤 처리 예상

◆ 싱가포르(창이공항)는 여객 3,040만명. 화물 180만톤을 처리하였으며, UPS,DHL,FedEX의 물류센터 입주 등으로 동남아 최대 물류거점으로 급부상

주요국 및 공항의 발전전략

- ◆ 중국은 규제완화 및 지방정부의 권한이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3대 항공그룹을 편성시켰으며, 이들 그룹이 중국 항공수요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
 - ▷ 최근에는 항공그룹 개편 이후 항공운송산업에 경쟁정책을 도입하여 항공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기업 참여 등 관련 규제를 완화
- ◆ 일본은 항공운송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항공자유화,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부문의 경쟁력, 수도권공항과 지방공항의 운영부문에 초점을 둠.
 - ▷ 항공자유화와 일본 정부는 자국 항공사가 미국의 대형 항공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부문은 비용절감으로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 ▷ 자국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운임 등의 규제완화는 2000년 이루어졌으나, 제한적인 공항운영에 따른 한계가 상존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

- ◆ 중국, 일본의 주요공항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시설의 적기공급 및 제반 서비스개선, 배후도시 활성화, 국제협력 등이 필요하며, 이는 공항의 자국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
- ◆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 * 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전략산업 육성에 기초한 클러스터 구축. 타겟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 ▷ 허브공항 지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신규 수요유발을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공항의 접근성 제고
 - ▷ 이용자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선
 - * 이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항공 노선망 확충 및 연계 강화. 복합운송(Sea & Air)활성화
 - ▷ 협력체계 구축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 국제협력 체계 구축.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건의

- ◆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와 배후단지간 기능의 명확화 및 상호 조정 필요
 - ▷ 공항물류단지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계획한 운서물류단지와 인접하여 있어 상호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 공항물류단지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운서물류단지에는 보다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 유치로 중심으로 한 단지개발이 필요
- ◆ 공항을 배후로 한 항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
 - ▷ 항공클러스터에 유치산업군을 선정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 ▷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항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유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 공항 및 배후시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
 - ▷ 인천광역시에서는 배후도시 건설과 비즈니스,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공항과 배후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

- ◆ 공항운영과 관련한 적극적인 참여 및 항공 운송산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
 - ▶ 공항운영 관련업무의 지자체 이관. 공항운영의 민영화 사례가 있음
 - ▶ 공항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기여방안을 공항운영, 항공운송사업 부문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저가항공사 또는 관광상품 개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중국 환발해 대도시권의 형성 및 경쟁력에 관한 연구

I. 연구배경 및 목적

- 중국의 대도시권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전망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지역이 환발해 지역이므로 환발해 지역 대도시권은 그 형성과정 및 현재의 경쟁력이 주강, 장강삼각주의 대도시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

II. 분석결과 및 시사점

- 금년부터 실행되는 중국 11차 계획에 대해 한국 대부분의 연구자는 그 기초를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중장기간 고도성장이 필요한 중국의 경우 도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거점 도시발전을 더 중시하고 있음.

- 계획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연해중심 개발전략에서 중서부개발, 동북개발을 강조하는 균형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음.

- 중국은 공식적으로 2005년 5중전회에서 이뤄진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 처음으로 도시군 개념을 제기하고 도시화의 중점으로 삼고 있음.

- 중국의 국토전략은 단층적인 균형전략이 아니며 중층적 불균형 개발임.

- 공간 불균형의 필요악을 전제로 한 글로벌, 서브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측면이 상호 중첩된 중층적 개발임.

- 특히 도시군,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를 글로벌 흐름을 국지화할 수 있는 결절공간(nodal space)으로 활용하여 결절공간에 기초한 공간편성과 네트워크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중심도시의 경제중심 기능의 상당부분은 금융 등 서비스로 특화하여 세계제조공장인 중국의 전체 공간을 이끄는 기능을 강화하려하고 있음.

- 현재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도시군(대도시권)의 경쟁력이 우리의 도시경쟁력을 추월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이들 지역의 발전에 유의하여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 주강삼각주도시군, 장강삼각주 도시군 정도만 성숙된 도시군을 이미 형성하고 있음.

- 환발해지역의 대도시권인 경진기, 산둥반도, 리아오둥반도 도시군은 아직 중심도시간 역할 분할 문제(경진기), 핵심적인 중심도시 역량부족(산둥, 리아오둥)등으로 도시군의 발전단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개별 대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한국 서울의 경우 아시아 3위의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 울산 등은 중국의 티엔진, 따리엔, 청도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의 도시들은 산업의 고급화를 첨단산업과 생산적 서비스업 취업 비중으로 측정한 구조지수의 경우에는 거의 맨 하위를 기록하여 최근 중국 도시들이 전자통신 등 IT산업 발전에 의하여 산업이 고급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임.

해/외/출/장/리/포/트

성장하는 닝보·저우산항의 잠재가능성을 보라

동북아·물류연구실 정태원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장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8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양쯔강 황금수로와 중국 대륙의 남북을 잇는 항로가 마주치는 T자형 구조에서 마주치는 닝보항은 양산항에 맞서 동남부 지역 허브항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양쯔강 황금수로와 중국 대륙의 남북을 잇는 항로가 마주치는 T자형 구조에서 마주치는 닝보항은 양산항에 맞서 동남부 지역 허브항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상하이 대양산항 개발이 2050년까지 사실상 연기됨에 따라 인근 닝보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제2의 만리장성'이라 불렸던 상하이와 양산을 잇는 32km길이의 동하이(東海)대교를 능가하는 40km길이의 항저우만(杭州灣)대교 건설도 닝보항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공사가 한창 중이었다. 항저우만대교는 상하이 내륙과 닝보시를 잇는다.

대양산항의 대안으로 닝보항이 떠오르게 된 것은 상하이가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게 됨에 따라 전 도시가 '컨테이너 지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때문에 대양산항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닝보터미널 저유시설



Gate System

또한 닝보항은 인근의 저우산항과 단일브랜드로 운영되는 닝보·저우산 프로젝트는 2003년 8월 저장성의 "해양경제부흥"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는 닝보·저우산항을 동일 해역에 배치하고 동일수로를 사용하며 동일경제권을 보유하는 것을 주요 사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2003년 12월에는 저장성 정부가 닝보-저우산항 합병과 관련 항만기획위원회를 소집해 대략적인 로드맵 구축에 들어갔으며 2004년 1월부터는 항만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향후 신설부두 운영 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다.

보이기 위해 외국선사들을 대상으로 주사규지에 나섰다.

2004년 2월 저우산항 확장계획이 중국교통부의 허가를 얻어 기존 36㎡규모를 72㎡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했고 2004년 3월 20일에는 닝보시 항무국과 저우산시 항무국 그리고 홍콩 밍저우유한회사가 공동출자해 닝보·저우산 컨테이너부두운영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2005년 11월 중국 중앙절부가 닝보·저우산항의 브랜드 통합을 공식 승인하고 같은해 12월20일 저장성 정부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1월1일부터 닝보·저우산항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2010년까지 세계 3위항만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최대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1년이 넘게 지난 두 항만의 통합효과는 정말 대단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통합 이후 화물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닝보·저우산항은 2004년 말 기준으로 항만처리능력이 2억3천만 톤에 달하였고 컨테이너 처리능력도 2004년 400만TEU를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30%증가한 519만 TEU를 기록하였다고 전한다.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잠재가능성이 풍부한 닝보·저우산항, 서로 인접해 있는 상해항과 닝보·저우산항 양항간의 앞으로 어떤 경쟁과 협력을 이루어 갈지 대단히 궁금하다. 또한 닝보·저우산항의 통합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앞으로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건 아마도 이러한 변화들이 인천항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닝보·저우산항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인천항의 변화해 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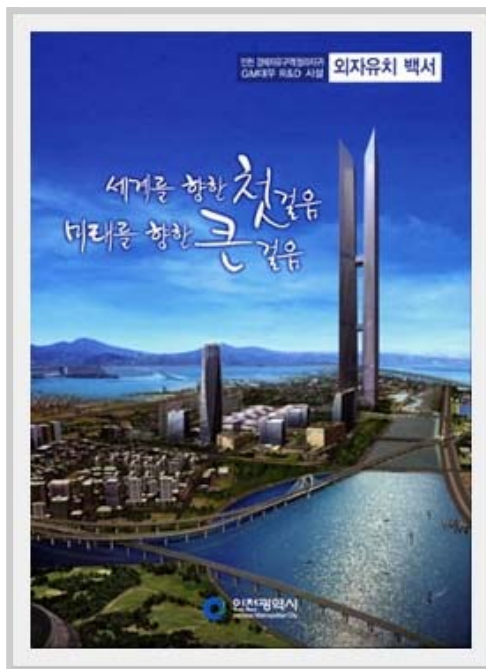
세계를 향한 첫걸음, 미래를 향한 큰걸음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8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GM대우 Rmp;D시설 유치 관련 외자유치 백서. GM대우 Rmp;D시설 유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서의 최초 외자유치사업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에도 활기가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자유치사업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관련 사진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주거환경 비전 및 전략연구



건설교통부

IT, 생태, 에너지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건전한 주거환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응 비전을 갖추고자 시도된 연구의 결과 보고서.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 요인을 정리하고, 미래 주거환경의 이슈를 추출해 본 다음, 미래 주거환경 이슈별 거대지표를 설정하여 그와 관련하여 건전한 미래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자료 총서 네 번째로 기획되어 발간된 자료집. 1898년 간행한 인천 관련 안내서로서 당시 조선신보사의 기자였던 야규시지 지로(樂師寺知臈)가 편찬한 책을 인천학연구원에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개항기 인천의 경제 구조 및 조계지의 사회상과 풍속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